



2/4분기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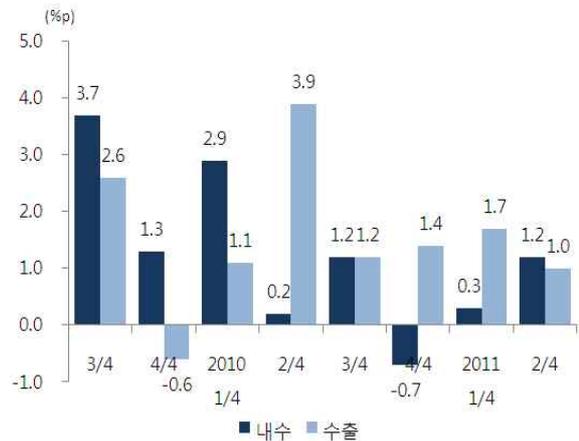
■ 한은에 따르면 2011년 2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기대비 0.8%, 전년동기대비 3.4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
- 지출별로는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호조로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1.0% 늘어나고,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전기대비 4.0% 증가하였으나, 토목건설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0.4% 감소하였으며, 수출 증가세도 둔화됨.
 -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보다 0.7%p 하락한 1.0%p로 2009년 4/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,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.2%p로 전분기보다 0.9%p 상승하면서 2010년 1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수출 기여도를 상회함.
-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규제역 및 이상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기대비 8.2% 성장한 반면,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전기대비 1.5%, 0.1%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, 건설업은 전기대비 0.3% 성장으로 부진이 지속됨.

〈그림 1〉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



〈그림 2〉 내수 및 수출의 성장 기여도



주: 전기대비는 계절조정 기준이고 전년동기 대비는 원계열 기준이며,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수치임.
 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.

- **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(GDI)은 전기대비 0.1%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,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0.4%에 그치면서 2009년 2/4분기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**
- **교역조건이란 수출상품가격 대비 수입상품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, 2011년 들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LCD가격은 하락한 반면,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됨.**

〈그림 3〉 실질 국내총소득 성장률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.

(2011년 2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, 한은, 7/27)